

##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 드라마 제작 경쟁

KBS '바람의 나라' 유치 추진에 SBS '자명고' 제작 희망

나주시 "드라마 2개 동시에 유치 방법 없나" 행복한 고민

KBS와 SBS가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에서 드라마 제작을 희망하고 있어 나주시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나주시는 드라마 '주몽' 방영이 끝난 후 삼한지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방송 예정인 KBS 드라마 '바람의 나라' 제작 유치를 추진해 왔다.

나주시는 이를 위해 시비 15억원 등 25억원을

KBS측에 지원, '바람의 나라' 제작을 유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SBS가 뒤늦게 바람의 나라와 시대적 배경이 동일한 고구려 사극드라마인 '자명고'를 내년 2월부터 방영 예정으로 나주시에 제작 지원을 요청해 왔다.

SBS측은 '자명고'의 경우 50부 방영 예정으로 바람의 나라 36부작보다 훨씬 방영 횟수가 많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상당부분 중국에서 촬영이 이뤄지는 '바람의 나라'와는 달리 '자명고'는 삼한지 테마파크 세트장을 주 촬영지로 활용하고 나주시가 부담해야 할 제작비도 1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

SBS는 17일 제작 담당 PD 등 관계자 4명이 나주시를 방문해 이같은 회사측 입장을 전달했다.

KBS측과 계약 체결을 목전에 둔 나주시는 SBS측의 유리한 조건 제시에 고심하고 있다.

나주시 문화관광과 신현만 팀장은 "나주시 입장에서는 SBS 드라마가 늦게 방영되는 만큼 2개 드라마를 함께 유치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나주시는 이를 위해 시비 15억원 등 25억원을

### 재일교포 하정웅씨 영암에 예술품 기증

서양화·벼루 등 727점

재일교포 사업가이자 광주 시립미술관 명예관장인 하정웅(69)씨가 17일 조선화 서양화, 벼루 등 예술품 727점을 고향인 영암군에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한 예술품 가운데는 북한 인민예술가 홍성철의 유화와 공로예술가 정장모, 리경남, 김성민의 조선화를 비롯해 우리 나라에서 접하기 어려운 북한작가 작품과 중국작가 5명, 일본작가 3인 등의 귀중한 미술품이다.

하씨는 지난 해 1월부터 지난 1

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미술품과 도자기, 조각 등 750점을 기증한 바 있다.

영암군 해외 홍보대사이기도 한 하씨는 이날 영암군청에서 김 일태 군수에게 기증서를 전달한 뒤 도기문화센터 '동강 하정웅 컬렉션 기념실'을 방문해 기증 작품을 확인하는 등 미술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특히 하씨가 지난 해 기증한 일본 남만 도기와 청자류 등 도자기 200여점은 영암 구림마을 도기문화센터 '동강 하정웅 컬렉션 기념실'에 상설 전시되고 있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 / 새 얼굴 /

#### "법과 원칙 바로세워 감동치안 펼칠 터"

박석일 해남경찰서장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감동치안을 펼치겠습니다."

박석일(44) 신임 해남경찰서장은 "직원간 인화단결을 통해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해남을 만들고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남 화산면 출신인 박 서장은 지난 87년 경찰대학(3기)을 졸

업한 뒤 순천 경찰서 경비과장과 광주 북부경찰서 정보과장, 전남청 홍보담당관, 제주청 생활안전과장 등을 거쳤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성숙(44)씨와 사이에 1남 1녀가 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 천연기념물 제 323호 '붉은배새매'



황금박쥐 서식지인 함평군 대동면의 생태보전지역 안에서 천연기념물 제 323호인 붉은배새매의 번식 장면이 포착됐다. 황새목 수리과 조류인 붉은배새매는 몸길이 28cm로 소나무와 참나무, 범나무 등의 나뭇가지에 둥지를 틀고 5월 중순이후 3~4개의 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평군은 17일 "영산강 유역환경경 감시요원으로 활동 중인 최수선(47)씨가 황금박쥐 집단 서식지 주변을 순찰하다 소나무 가지 사이의 둥지에서 깨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붉은배새매를 카메라에 담았다"고 밝혔다.

(함평군 제공)

### 담양 농업용수 통합 관리 협의회 발족

농업용수 수질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협의체가 탄생했다.

농촌공사 담당자(지사장 박종화)는 최근 지역주민과 농촌공사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농업용수 수질관리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 협의회는 담양지역 10개 저수지 별로 결성돼 있던 수질관리협의회를 통합한 것으로 앞으로 정기적인 환경

정화 활동 및 수시 감시활동을 벌인다.

또 간이 수질개선시설 설치 등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유도로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친환경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은 물론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 생존 위기 몰린 어업인을 살려라

해남군, 고유가 시름 어업인에 영어자금 지원

김 양식농에 냉동망 2곳 조성·기자재 공급도

해남군이 기름값 상승과 각종 원자재 값 폭등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어업인 지원에 나섰다.

해남군은 2억 4천만원을 들어 어업인들이 대출받은 각종 영어(漁漁)자금이 차관(이자와 차액) 보전을 실시한다.

지원금액은 대출 총액 5천만원에 2%를 보전하며 대상은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1천 52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이달부터 어업용 면세유의 가격이 1천 800원을 초과할 경우 조과 금액의 50%인 ℓ

당 최대 183원씩 지원키로 했다.

또 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어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특히 해남군에서 단일수산 품목으로는 최고 매출액(천어가·연간 450억 원)을 자랑하는 김 생산 어가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에 나선다.

해남군은 전국 차자단체 최초로 김 냉동망 2개소를 조성하고, 1억 2천만 원 상당의 김 양식 기자재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 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4개소

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1개소,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6개소 등 각종 시설물 설치에 7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갑각류 양식장과 어류 양식장 등에 소독제를 집중 지원하고, 수산물 질병예방 백신공급과 양식장 정화사업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특산품 포장용품 지원과 인터넷 프로그램 설치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들이 생존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매하지 못한 오리 중 50만마리다.

수매는 수매 당일 전주 평균가격으로 kg당 1천490원 이내며, 이미 수매를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신청농가의 수매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수매는 전남도가 수매비용의 30%, 그리고 정부가 70%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진행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오리 50만마리 이달말까지 추가 수매

전남도 AI 피해 농가 지원 나서

마리를 추가 수매한다.

전남도가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격리학과 판매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리사육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50만

마리를 추가 수매한다.

전남도는 지역 오리 사육농가의 수 매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4월부터 전 체 수매 희망 물량 200만 마리 중 145

만 마리를 수매했으며, 이번에 수매되는 물량은 자금이 부족해 미처 수

매하지 못한 오리 중 50만마리다.

수매는 수매 당일 전주 평균가격으로 kg당 1천490원 이내며, 이미 수매를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신청농가의 수매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 수매는 전남도가 수매비용의 30%, 그리고 정부가 70%를 부담하는 매칭펀드 형태로 진행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전국 최장 바다수영대회 열린다

내달 2일 신안 증도서

전국 최장거리 바다수영대회가 다음달 2일부터 신안군 증도의 우전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종목이다.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2회 전남도지사배 전국 바다수영대회'는 '섬 갯벌 축제'가 열리는

증도에서 500m, 3.2km, 10km 등 총 4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특히 장거리 10km코스는 올림픽 종목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에서만 개최되는 종목이다.

이번 대회 참가 선수는 가족 포함 2천여명으로 예상되며, 특히 국 제대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본 선수 10여명을 초청해 세계적인 기량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더욱 많은 선수 및 동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간 최우수 선수는 일본국제바다수영대회 참가격 및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는 등 특전이 부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선수는 한국 바다 수영 협회 (www.akwws.com)에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홍행기자 redplane@

### 화순군, 광주상의 회장단 초청 설명회

회순군이 세계적 응용연구기관인 독일 프라운霍퍼 연구소 유치에 이어 생물·의약 관련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회순군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기승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홍균 부회장, 문덕형 상근부회장 등 회장단 12명을 초청,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

회순군은 회순을 서래리 제2 산업단지와 도곡 쌍용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최고의 기업유치 조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완준 회순군수는 "프라운霍퍼 연구소 유치 효과는 회순은 물론 광주·전남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 한국 분소를 회순에 설립키로 한 독일 프라운霍퍼 IME 연구소는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백신, 의·생명공학, 항암의약 등에 연구활동을 집중하게 된다.

/회순=조승수기자 css@

### 법원경매 전문회사

-■ 앞서가는 사람■ - (주) 육선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입)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경매재테크

법원경매, 면도 무처리내에서 및 성립여부, 낙찰가에 상분석 예고통지, 선수위 기동기, 기자분, 가장일치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대합니다. (주) 육선코리아 대표 : 1무로상당

▶ 투자수익부동산 010-3666-8446

소재지 지목 면적/대(건/㎡) 갑 경기 가 최저 가

해남군 신이면 전 2508 6300만 5800만

부여군 풍수면 전 1979 5300만 3700만

전 2935 7900만 5500만

해남군 신이면 전 1143 3400만 2300만

용인동 근린시설 150/177 88300만 68000만

화성시 신이면 98/250 39400만 5500만

화성시 신이면 98/250 39400만 55